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래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실 것이다-

고도의 문명과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로 보셨다. 상한 갈대와 꺾여가는 심지는 약하고 변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다. 광야같은 세상에서 상한 갈대로 버림받은 한국교회를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의 불을 꺼서 폐기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요 긍휼의 선언이다. 한 손 말라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이다.

요단 강변의 갈대밭에 있는 갈대는 심한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면 꺾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남보기에 키만 웅장하게 커보이는 오늘의 한국교회다. 요단 강변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는 인생고와 거친 풍랑 앞에서 상한 갈대처럼 무력하고 나약할 뿐 아니라 무용지물처럼 버림받은 존재다.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투쟁을 열고 보면 슬픈 탄식과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있다. 실로 상한 갈대다. 세파에 시달리고 꺾어진 상한 갈대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상한 갈대같은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위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처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골치 아픈 존재라 여기고 그를 피해갔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은 가슴 아파하며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돌려 보내셨다. 실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 닭 우는 소리에 심한 통곡을 한 베드로는 자신이 상한 갈대임을 알게 된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 꺾여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상한 갈대지만 주님은 한국교회에 기대를 갖고 계신다. 갈대는 속이 비었으나 곧게 자란다. 비록 상한 갈대지만 잡초와는 다르다. 약하나 쓸모가 있는 것이 갈대다. 갈대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재료로 쓰인다. 파피루스라는 갈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상한 갈대같은 한국교회를 하나님 말씀 증거의 도구로 삼으셨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한 갈대들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한다.

갈대는 피리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는 악기로도 쓰인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려고, 상한 갈대같은 한국교회를 꺾지 않으셨다. 무엇보다도 갈대는 자(尺)로도 사용된다.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서 길이를 재는 척도로 쓰인다. 상한 갈대같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양심의 기준이 되고 생활의 척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꺾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 이 갖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우리는 상한 갈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힌 갈대라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한다. 예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갈대를 가지셨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어설픈 연극이 아니다. 홍포는 왕의 옷, 가시관이지만 왕의 면류관, 손에 잡힌 갈대는 왕권을 상징한 홀을 대신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갈대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이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역사상 위대한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가 주님 손에 붙잡힌 겸손한 갈대였다. 박달나무나 흑단나무는 아닐지라도 상한 갈대임을 자인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09호] 2012년 2월 18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0:14-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Flee and Participate"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p>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p> <p>선교사 전광혜(사이시야), 이은준(강해정, 양해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강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롤, 수련존(방글라데시) / 캄팩시, 윤영목,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이재물(박병진)감보디아, 이재훈(박치현)미디카(브라키)</p>	<p style="text-align: center;">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천국시던 양성·판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

- 창3:6-7, 10, 21; 롬 13:11-14, 빌 2:5-11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한다
잠이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깨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취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무감각해진 교회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롬 13:11).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갑니다. 구원의 현재성과 그리스도 재림 때에 완전성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롬 13:12-14)
바울은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음의 6가지로 말씀합니다.
①방탕함-무질서하고 제약없이 행동하는 것 ②술취함-자제력을 상실하고 무책임한 언행과 악에 대해서 용감해 지는 상태 ③음란-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부도덕한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④호색-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자, 금수처럼 어두움을 좋아함 ⑤쟁투-특권의식을 가지고 논쟁과 다툼을 좋아하는 자. 교만한 자. ⑥시기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 할 우리 가운데 이런 옷을 하나라도 입고 있는 이가 있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였다 는 것으로 칭의에 대한 진리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자기들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했습니다.(창 3:10) 이것은 심리적, 육신적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 문제로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옷은 선행입니다.(롬 2:1-16) 그러나 선행이 인간 편에서 혹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으로는 결코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선함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만 덮어 주실 수 있습니다.(창 3:21)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히 9:22)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멍어를 매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존귀, 전능을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란 말은 참 신앙 인격자, 바른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참 크리스찬의 신행일치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희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태훈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37:3-4...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6(시 50)...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88(204)...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5:13-16...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승구 목사
- * 찬 송 Hymn455(507)...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 기 도 유인숙 권사
- 성 경 갈 2:11-21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김양언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 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 모하지 말라(롬 13:1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 한나전도회 9월 월례회 / 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리브가전도회 9월 월례회 / 8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이승구牧사는 총신대와 동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 스코틀랜드 세인트안드루스대학교에서(M.Phil., Ph.D)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합신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수고하십니다.</p> <p>15. 이태훈牧사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미국 트리니티 북음주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서울교회에서 시무하다 2010년 도미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레스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p> <p>두 분의 오늘 말씀 증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장례</p> <p>1. 故 강원자 성도(2교구 권영선 성도의 모친, 남은희 성도의 시모) / 1일 별세, 3일(화) 발인</p> <p>2. 故 박소년 성도(14교구 김창훈 집사의 모친, 전정순 집사의 시모) / 1일 별세, 3일(화) 발인</p> <p>3. 故 안은신 권사(3교구 김은석 집사의 모친, 박은진 집사의 시모) / 5일(목) 별세, 7일(토) 발인</p> <p>4. 故 원복순 권사(2교구, 7교구 김민아 집사의 외조모, 오윤걸 집사의 처외조모) / 6일(금) 별세, 9일(월) 천국환송예배</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2명	227명	193명	1,282명	12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1일	헌 금	41,091,100	
	특별예배비		87,190
	찬양운영비		8,240,000
	구 제 비		550,000
	경 조 비		54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355,260
	통 신 비		143,840
	수도광열비		18,960
	차량유지비		302,600
	환경유지비		191,600
	수선유지비		97,000
	식당운영비		1,276,100
	합 계	41,091,100	12,052,550